

남성의학 전문의 조철희의
술직, 대담한 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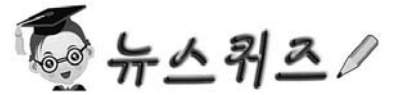
'수도관'이 막혔으면 뚫어야죠

50대 이후에 비뇨기과를 방문하는 이유는 전립선비대증에 의한 배뇨장애나 혹은 발기부전에 의한 경우다. 전립선비대증은 중년 이후의 남성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환 중의 하나로, 50~70세의 남성의 40~70% 정도에서 발생하며 실제로 배뇨장애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20~35% 정도다. 20년전 만해도 한국 남자 평균수명은 60세를 넘는 정도였다. 따라서 60세 이상 비대증 환자가 병원을 찾아도 수술 치료에 어려웠다. 약물치료도 이제 막 초기단계라 합병증이 많았기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경요도적으로 도뇨관을 삽입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 복용하는 약물도 많이

개선되어 일차적 요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수술 또한 레이저 치료법까지 개발되어 현재 시술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립선비대증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유발인자로는 연령 증가와 남성호르몬의 영향으로 압축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립선비대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환자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전립선비대증에 의한 야간뇨·요절박·소변주저 등의 배뇨 기능 장애는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 배뇨문제로 여행을 꺼리거나 야간 빈뇨로 인한 수면 장애를 초래해 낮에 피곤하거나 일의 능률을 많이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전립선비대증 진단 검사를 거쳐 경증을 따진 뒤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데, 통상 추적관찰, 약

물요법, 수술요법 등을 위주로 한다. 추적관찰은 환자의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치료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약물 치료는 폐쇄된 전립선 요도 부위를 이완시키거나 전립선 크기를 감소시키기 위해 특정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지루하고 약물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수술요법은 4년 전부터 레이저를 이용한 수술법으로, 과거 경요도적 전립선절제술과 거의 동일하면서도 부작용은 적다. 수술시 사용하는 레이저는 혈액에 직접적이고 완전히 흡수되기 때문에 출혈이 거의 없고 전립선조직에 80W의 초출력의 에너지를 가하여 조직을 기화시킴으로써 해서 폐쇄된 전립선조직

을 제거한다. 국소마취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수술보다 훨씬 적응증이 완화됐다. 국내에 약 80대 이상 보급됐다. 전립선수술은 합병증을 무시할 수 없는데 합병증으로는 일시적인 경도의 혈뇨, 배뇨통, 요폐색, 요실금, 요도협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의 수술에 비하여 경미한 정도다. 이 레이저를 이용하여 3년 이상 2000건 이상 수술을 시행했는데, 보통 치료 효과는 약 80% 정도에서 만족하고 20% 정도, 이미 방광의 변화가 심하여 수축력이 감소된 경우에는 효과가 없었다. 적절한 수술 시기가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실령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약물치료를 하면서 방광의 수축력을 유지하면서 나중에 수술을 해도 효과가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립선수술에서 꼭 환자들에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수술로 인한 발기 장애는 거의 없으나 역행성 사정 30% 정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나이가 50대 이상이거나 성적으로 왕성한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이다. <전문매니 비뇨기과 원장>



75.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최근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감독은 29일(이하 한국시간) 일본과의 2007 아시안컵 축구 3-4위전을 마친 뒤 "대한축구협회에 이번 일본전을 마지막으로 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 ① 배어백 ② 알렉스 퍼거슨
③ 거스 히딩크 ④ 세를 귀네스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상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함께 풀어봅시다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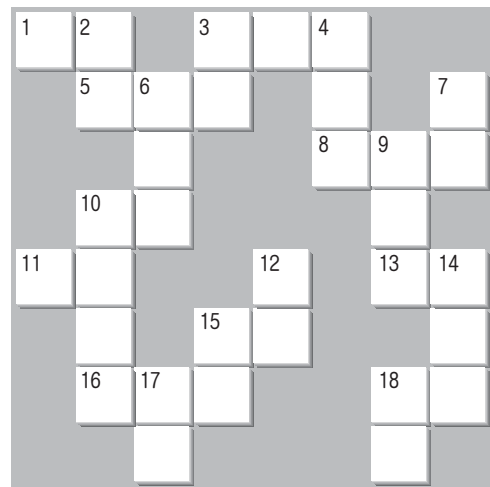
→ 가로풀이

1.매우 심한 더위. →폭서. 3.열, 전기, 충격 등의 자극에 의해 순간적으로 연소 또는 분해 반응을 일으키고 높은 온도의 열과 압력을 가진 가스를 발생시켜 파괴, 추진 등의 작용을 행하는 화합물을 저장해두는 창고. 또는 분성이나 전염 등이 일어날 위험이 많은 지역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동의 ~. 5.폭풍 해일 홍수 등 지표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을 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예보. 지금 남해안은 태풍~가 발효 중이다. 8.남편의 높임말. 또는 결혼한 시동생을 이르는 말. 10.비스듬하게 그은 줄. →사선. 11.어떤 장소를 열어 운영을 시작함. 지난 주에 전국의 모든 해수욕장이 ~했다. 13.어느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함. 또는 그 분야. 15.큰 물결이 지나간 뒤에 일어나는 잔물결. 또는 어떤 일이 끝난 뒤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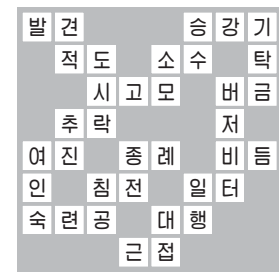
남아 미치는 영향. 16.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또는 유대인이 선민의식에서 그들 이외의 여러 민족을 이르던 말. 18.살아 익힌 쇠고기나 돼지고기

↓ 세로풀이

2.열불할 때에, 손으로 돌려 계수를 세거나 손목 또는 목에 거는 법구. 3.여러 가지 일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사진을 찍어 발행한 책자. 또는 그런 인쇄물. 이 책은 다양한 도표와 ~를 함께 제시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4.옛 문서. 또는 오래된 문서. 6.사회적 공익이나 자신을 위하여 내는 돈. 수재 ~. 7.'생원님'의 준말. 또는 암전하고 고루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9.권투에서 챔피언 타이틀 보유자가 그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경기. 10.씨름에서, 상대방의 안다리걸기가 성립되었을 때 상대방의 다리를 사타구니로 죄어 붙



여 발목으로 상대방의 윈다리를 걸어 넘기는 기술. 12.얼어서 터짐. 14.공적인 재원(財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사교육. 15.어른이 된 여자. 소박하면서도 강인한 조선의 ~. 17.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함. 18.은행에 당좌 예금을 가진 사람이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줄 것을 은행 등에 위탁하는 유가 증권.



<함께 풀어봅시다 261회 정답>

▲지난주 정답자

김미라·광주시 북구 운암동
윤영미·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응모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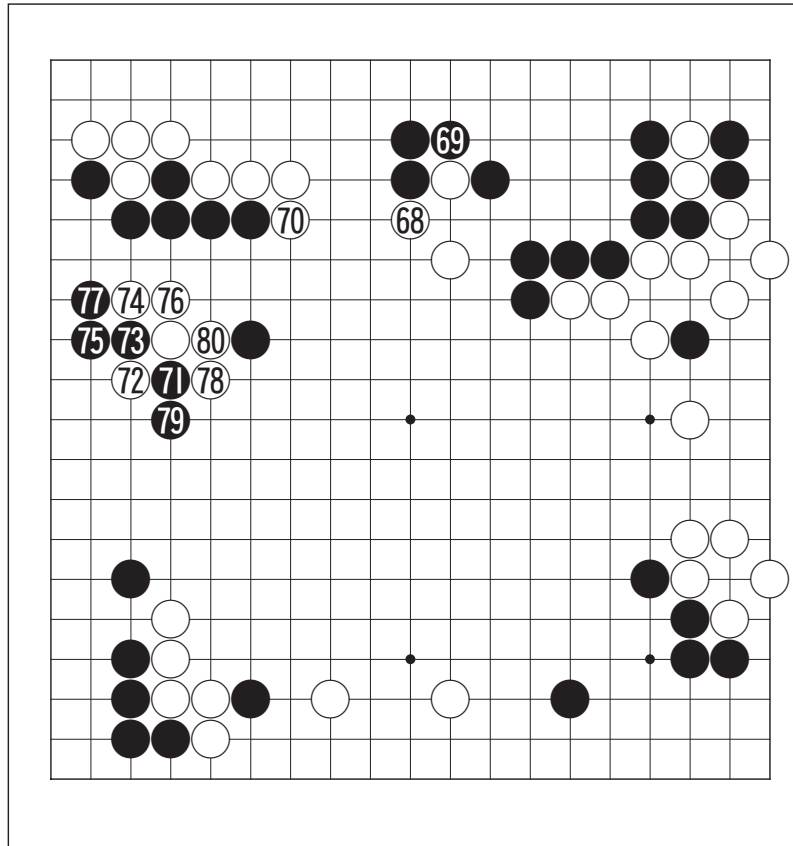
광주일보 지면을 오려 정답을 적어 보내시면 매 회 1명씩 추첨, 상품권(2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내실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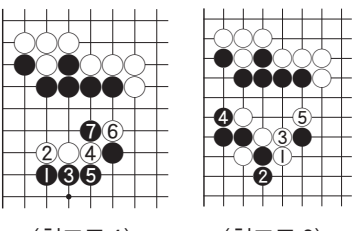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30일(음 6월 17일 乙丑)

Table with 12 rows of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of July 30th.



제16회 광일배
직장대항
단체 4회전



좌편의 공방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중반전에 접어들고 있는 장면이다. 백70이 공방의 요소로 광장히 두터운 곳이었다. 이 수는 오른쪽의 백을 돌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좌편 백스도 응원하는 일석이조의 호점이다. 최완용 5단도 이곳이 승부처임을 직감하고 흑 71로 불어 강력한 태클을 걸어간다. 상대의 공격을 시험해

강력한 태클 4보(68~80)

보는 의미도 있다. 이 수로는 보통 '참고도1'의 흑 1이 급소다. 백 2로 막으면 3으로 막아 싸울 수 있고 또 2로 3에 두면 흑이 2로 넘어 불만이 없다. 최완용 5단이 강력하게 드라이를 걸어오자 이창준 5단이 거기에 밀려들어 흔들리기 시작한다. 백 76이 실착으로 무거운 수였다. 이 수로는 '참고도2'의 백 1로 물고 5까지 두어야 했다. 실전은 5에 두지않고 '7'에 이은 형태라 흑의 강공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박정상·장주주 원익배 첫승

박정상 9단이 최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기 원익배 입단전 본선 1회전에서 김기용 3단을 170수 끝에 백불계로 꺾고 2회전에 진출했다. 장주주 9단도 위에랑 4단을 326수 끝에 백 1집 반으로 제압, 2회전에 합류했다. 박정상 9단은 이상훈 6단과 2회전에서 대결하게 되며 장주주 9단은 이정우 6단 대 홍민표 5단의 대국승자와 3회전 진출을 다룬다. 이 대회는 각자 제한시간 10분, 40초 초읽기 3회로 진행되는 속기전이다. 본선 4강 진출자는 차기대회 본선시드를 확보하며, 우승상금은 3천500만원(준우승 1천500만원)이다. /윤영기자 penfoot@

굿모닝 잉글리쉬 <958>

I'd like to make an overseas call.
저는 국제전화를 걸고 싶습니다
A : I'd like to make an overseas call. Please connect me to 222-6323 in Gwangju.
B : Please hang on. Your call has been connected.
A : Thank you.
A : 저는 국제전화를 걸고 싶습니다. 광주 222-6323으로 연결해 주세요.
B : 잠깐만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A : 고맙습니다.
* connect me = give me~, put me through to~, connect me to~
* overseas : adj 해외의
* hang on ~ : 기다리다
* 광주하고 밴쿠버하고 시차를 알고 싶는데요. = I'd like to find out the time difference between Gwangju and Vancouver.
* 전화를 어떻게 거는지 알려주시겠어요? = Please tell me how to make a phone call.

오하오우 니혼고 <958>

いつ肩叩(かたたた)きされるかわかりませんからね。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니까요
A : 今時(いまどき), どの職場(しょとば)もリストラの嵐(あらし)で安心してはいられませんね。
B : そうですね。いつ肩叩(かたたた)きされるかわかりませんからね。
A : ええ、今から準備(じゅんび)しておいた方がよさそうですね。
B : 準備も必要(ひつよう)ですけど、会社(かいしゃ)にいる間は、一生懸命(いっしょうけんめい)やりましょう。
A : 요즘 어느 직장이나 정리하고 바람으로 안심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B : 그렇습니다. 언제 해고 당할지 모르니까요.
A : 예에, 지금부터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B : 준비도 필요하지만, 회사에 있는 동안은 열심히 합시다.
今時(いまどき) : 요즘, 요즘
리ストラ : 정리해고
嵐(あらし) : 광풍, 폭풍
よさそうだ : 좋을 것 같다

니하오 쑹구위 <148>

今天下午有一个讲座
오늘 오후에 강좌 하나가 있어요
A : 今天下午有一个讲座, 咱们一起去听听吧。
Jīntiān xiàwǔ yǒu yí ge jiǎngzuò, zánmen yìqǐ qù tīngtīngba.
今天 오후에 강좌 하나 있어요, 우리 함께 들으러 가요.
B : 무슨 강좌인데요?
Shénme jiǎngzuò?
어떤 강좌 무엇?
A : 关于中国和韩国经济的。
Guānyú Zhōngguó hé Hánguó jīngjì de.
중국과 한국에 대한 경제에 관하여.
B : 中国和韩国经济? 听得懂吗?
Zhōngguó hé Hánguó jīngjì? tīng de dǒng ma?
중국과 한국 경제? 뭐가 뭐가?
A : 오늘 오후에 강좌가 하나 있어요, 우리 함께 들으러 가요.
B : 무슨 강좌인데요?
A : 중국과 한국에 경제에 대한 강좌입니다.
B : 중국과 한국에 경제요? 알아들을 수 있나요?
讲座 {jiǎngzuò} 강좌
经济 {jīngjì} 경제

한자 이야기 <575>

膽大(담대)
שלגע 담, 큰 대
담대(膽大)는 담(膽개)이 크다는 말로 담력(膽力)이 크음을 의미한다. 즉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함을 비유한다. '담대'의 순서를 바꾸면 '대담(大膽)'이 되는데 의미는 마찬가지로이다. 성경(聖經)에는 '담대'라는 번역어가 자주 보인다. 이 경우는 본래 헬라어의 '자유'라는 의미의 '파레이시아'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다. 헬라어에서의 본래 의미는 첫째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뜻하고, 둘째는 '신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담대'란 '자유롭게' 또는 '자신이 부끄러움이 없이 신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경에서 사용하는 '담대'란 말은 한자로 구성된 담대(膽大)와는 그 사용 용례에서 차이가 생기게 된다. 한편 문장(文章)을 지을 때 배짱은 크게 갖되 주의는 세심해야 한다는 말로 '담대심소(膽大心小)'라는 말도 있다. 즉 담대(膽大)하면서도 치밀(緻密)한 주의력(注意力)을 가져야 할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한편 담대의 반대말은 소심(小心)이 된다.

더마플라스트 밴드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